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인성교육 내용분석

- 중학교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



2007년 1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최은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인성교육 내용분석

- 중학교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류 태 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최 은 희

최은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1월 일

주 심	정치학박사	하 봉 규 (인)
위 원	정치학박사	류 태 건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인성교육으로서의 도덕교육	6
1. 인성교육의 개념	6
2. 인성교육으로서의 도덕과 교육	7
III. 7차 교육과정상 도덕교육의 전개.....	10
1. 제7차 도덕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0
가. 행동실천을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	10
나. 교과와 타당성 제고	11
다. 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성 확립	13
2. 도덕 교육 내용면.....	14
가. 도덕교과 과정의 성격	14
나. 도덕교과 과정의 목표.....	15
다. 도덕 교과의 내용	16
3. 도덕과의 교수·학습·평가의 방법면.....	18

IV. 제7차 중학교 도덕교과서 분석	22
1. 교과서 분석의 범위.....	23
2.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 분석	23
3.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 분석	28
4. 도덕교과서 속의 인성교육의 한계	34
V. 결론	37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 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산업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인 빈곤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다. 각종 언론매체나 뉴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보는 비인간적인 행위나 사회문제 등을 볼 때 인간성 회복은 시급한 과제다.

인간은 출생 당시 다른 동물과 별 차이가 없으며 어떤 점에서는 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진 이러한 특성과 결함은 필연적으로 교육을 요구하며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워 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능력은 물론 사회적으로 계승해 온 여러 가지 규범이나 세계관, 인생관, 관습 등을 가치와 태도를 위시해서 논리적인 지식과 기술 등의 학습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인생의 전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문제를 초래하는 시기로서 여러 가지 정신장애와 불안, 비행, 반항, 범죄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란, 약물복용, 성폭력, 청소년 비행, 학교 폭력 등의 청소년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또는 교사)와 학부모는 무엇보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성교육의 지도방향이나 방법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올바른 인성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특히 학교에서 과

거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요즘 청소년들을 감화시키지 못한다. 이미 그들에게 학교는 지식의 전달매개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가장 기본이다. 1차에서부터 7차 도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첫째, 공교육의 붕괴이다. 오늘날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권위의 주체가 아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²⁾ 요즘 학생들의 대부분은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선생님 역시 학생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보다는 교과과목에 대한 지식만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입시 문제는 인성교육을 도외시한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교를 입시를 위한 지식 전달매개체에 불과하게 만들었고, 이는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셋째, 인성교육에 관련된 학교에서의 각종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며, 도덕 교과 내용 역시 인성교육을 위해 내실있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인간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교육 자체가

1) 조대엽·박길성외,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서울:굿인포메이션, 2005), 이은선,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고찰과 반성",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p. 1-5.

2) 이종재 외, "학교 위기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내실화 방향과 과제", (미간행논문:126, 2001), 연구에 의하면 수업차원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8.8%는 수업을 기피하고 있고, 16.4%는 학습의욕을 상실했으며 18.5%는 수업이해에 곤란을 느끼며 23.7%는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16.4%는 학교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34.6%는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나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인성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히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³⁾

첫째, 가정의 해체이다. 전통적으로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도덕 교사였던 가정은 오늘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화이트헤드(Barbara Dafoe Whitehead)는 “댄 콰일은 옳았다”(Dan Quayle Was Right”, April 1993)라는 글에서⁴⁾ 가정의 붕괴에 따른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결국 가정의 해체는 인성교육의 방향의 주체를 학교교육으로 돌리고 있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가치들을 학교가 가르쳐야 하며, 학교는 학생들이 불행한 가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들의 할일에 집중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따뜻하고 책임있는 학생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덕 공동체(Moral Communities)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환경요인을 학교가 치유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도 대중매체, 또래집단, 기타 외적인 여러 요인들이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학교교육이 앞서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치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교육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컴퓨터, 통신발달, 정보화 등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기주의, 인간성 상실, 물질만능주의 등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다. 따라서 학교는 존경, 책임, 관용, 정직 등의 기본적인 덕과 윤리적 가치들을 체계화하여 청소년들이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정세구의 옮김, “인격교육과 덕교육”, (서울:배영사, 1997)

4) 정세구의 옮김, 앞의책, pp. 18-20.

도덕과 교육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소양과 최소한의 규범을 배우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인격형성이 청소년기에 확립되므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려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선봉에 도덕교육이 앞장 서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도덕적, 실천적 인간양성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과서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인성교육적 입장에서 도덕교육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전인적 성장의 바탕위에 개성을 지향하는 인간”과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이 제시된 바 있다. 그 구현을 위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가 내세워 지고 있는데 그 주 임무를 학교의 도덕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⁵⁾ 경로효친 정신의 해이, 음주·흡연, 폭력, 생명경시, 가족붕괴 등의 문제는 학교 도덕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재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는 도덕윤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했고, 또 최근 이룩된 경제발전 과정에서 잘못 형성된 물질 만능주의의 확산과 인간성 타락 및 상실의 풍토의 치유하여야 했고, 세계화 정책과 도시화 현상에 의해 파생된 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회복하여 재정립하는데 인성교육의 재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도덕적 인간상을 도덕과가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중학교 1, 2학년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도덕,사회”,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p. 163.

인성교육은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知), 정(情), 행(行)의 변화를 주체적,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라고 보고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인성교육 내용만을 분석의 범위로 삼는다.

중학교 교과서의 생활영역은 크게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의 4영역으로 분류된다. 1학년 도덕에서는 도덕규범과 생활예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2학년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는데 강조점을 두었으며 3학년에서는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덕 성향의 형성에 목표를 두었다.⁶⁾ 한편 3학년의 교과에서는 1학년에서 다루는 개인생활과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을 보다 심화 확대하였기에 1학년과 3학년은 주제나 교과구성, 내용면에서 중복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학년은 제외하고 중학교 1, 2학년 도덕교과서 내용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을 통한 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에 인성교육이 통합적으로 전개되는 실생활에서의 구체적 성과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앞으로 제Ⅱ장에서는 도덕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도덕교육 내용변화의 일반적 성격을 고찰한 뒤, 제Ⅳ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 2학년 도덕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6) 교육부, 앞의 책,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p. 190.

Ⅱ. 인성교육으로서 도덕교육

1. 인성교육(人性敎育)의 개념

인성교육에서 우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 교과과정에서 추구하여야 할 ‘인성(人性, Humanity)’의 개념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인성(人性)’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성품이다.⁷⁾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은 인성이 됐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본받을 만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인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유사 이래 꾸준히 모색되고 있으나 오늘날까지도 만족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어느 관점에 따라서 보려는가 하는 것에 철학, 문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정신 분석학적 관점 등으로 달라지게 된다.

인성(人性)과 관련된 다른 용어로서는⁸⁾

1. ‘성격(Character)’: 개인의 사람 됨됨이나 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쓰이며 도덕적이고 의지적인 면에서 보는 개인의 성질
2. ‘기질(Temperament)’: 체질에 바탕을 둔 정서 발동의 경향으로서 유전적 요소가 강하여 성장 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이 유지되는 개인적 특징

7) 남궁 달화, “인성교육”, (서울:문음사, 1997), p. 7. 그는 인성교육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인성교육이란 마음을 발달을 위한 정서교육을 하는 것이고, 둘째,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을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더불어 살기위한 도덕교육을 하는 것이다.”

8) 홍경자,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학지사, 1997), p. 22.

3. ‘개성(Individuality)’: 다른 사람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성질
4. 성품, 품성: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평가되는 성격적 특징
5. 심성: 지·정·의(知·情·意)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 또는 성격의 본바탕
6. 마음: 어떤 자극에 대하여 지각,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이 갖게 되는 정서와 사고 등

인성의 개념에는 이러한 인격, 기질, 개성, 심성, 성품, 마음 등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을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쉽게 풀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더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 정신과 기본 생활 습관, 민주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게 성장하도록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인성 교육이라는 말은 성격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 또는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성교육으로서의 도덕과 교육

‘인간으로서 올바른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뜻하는 인성교육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의 대안으로써 제시된다.

9)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바람직한 품성의 핵심요소는 도덕성¹⁰⁾이다.

인간다움을 뜻하는 도덕성의 개념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성이 인간됨의 최소 조건이 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성의 함양이란 인성교육 개념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인성교육의 목표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진 전인적인 인격의 양성이라고 할 때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도덕과의 내실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행 인성교육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홍경자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잠재력의 개발,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전인적 발달의 도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육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¹⁾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들어와 인성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의 도덕교육과 연관이 깊다. 미국의 도덕교육은 교육과정상에 도덕적 발달 측면 강조와 인격교육의 덕 중심의 교육이 통합되면서 시작된다.¹²⁾ 이는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인 ‘인지적 측면’,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인성(또는 인격)교육 운동을 이끄는 사람 중의 하나인 리코나(Thomas Lickona)의 통합적 접근¹³⁾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리코나는 ‘인격교육이란 훌륭한 인격을 발달시키

9) 이은선,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고찰과 반성”,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pp. 1-5.

10) 이돈희, “도덕교육원론”, (서울:교육과학사, 1986). 그는 도덕성이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성향이다”라고 봄.

11) 홍경자,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학지사, 2004), pp. 37-38.

12) 김항인, “미국 도덕교육 및 도덕교육 연구의 역사와 과제”, “도덕과 교육론”, 한국도덕과 교육학회, (서울:서울과학사, 2001)

13) 조난심,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선 방향-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교육과정개발원, “교육과정연구”, 22권1호, 2004), p. 4.

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통합적 접근'을 인격교육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인간의 인지 발달 과정상에 도덕성의 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요소를 전통적인 도덕교육의 방식이나 일상 생활을 통한 도덕교육 방법과 접목하였다.¹⁴⁾ 그러나 미국의 도덕교육이 우리의 도덕교육의 방향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인성교육은 사회과와 통합되어 있고, 우리의 도덕교육은 독립된 하나의 교과로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14)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교육과학사, 2004). 리코나는 삼분법적 관점에서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서 도덕적 인지,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을 제시한다.

Ⅲ. 7차 교육과정의 도덕교육의 전개

1. 제7차 도덕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가. 행동실천을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

우선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성 상실, 가치관의 혼란, 비도덕성 등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서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급선무로 여기게 하였다. 따라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국민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실천의 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덕적 실천이 중요시되는 중학교 도덕과의 내용은 기존의 지식위주의 교과편성에서 벗어나 행동 실천의 효과가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은 봉사활동과 직접 연계됨은 물론 각종 클럽, 종교단체, 사회기관, 학모와의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 도덕적 행동 실천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도덕과 교육의 당면 과제이며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덕과의 교과교육 활동만을 통해서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인,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의 4개 영역별로 도덕적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중 7-10학년(중1~고1)에서는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의 4가지 영역별로 각각 특색있는 행동실천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7-8학년(중1, 2)에서는 생활 예절과 윤리적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실천 방향을 직접 제시하였고, 9-10학년(중3~고1)에서는 우리가 당면하는 제반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해 복잡한 사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특히, 인물 학습 및 봉사활동 학습,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그리고 도덕실에서의 토론 과정을 통하여 가치·태도의 내면화와 행동 실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상의 개선안을 모색하였다.¹⁵⁾

나. 교과목의 타당성 제고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또 하나의 강조점은 교과목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목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도덕·윤리관과 이념적 시각을 확립하는데 교과목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이 세계적 보편 윤리·도덕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가 지향하는 보편윤리와 우리 국가·민족이 지향해 온 민족정신으로부터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생명존중’, ‘상호존중’, ‘사랑’, ‘평화 애호 사상’, ‘관용’, ‘절제’, ‘인종차별 금지’ 등이 그것이다.

교과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민의 국가안보 의식의 신장과 함께 대북한 민족 공동체 의식과 통일의지의 확립, 그리고 지구 공동체적 국제윤리 의식의 재형성을 요구한다.

15)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도덕,사회”,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p. 175.

현대 산업화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 비인간화, 인간성 상실 등의 풍조를 치유하여 전통적 가치와 현대 사회 가치와의 괴리를 극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덕·윤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세계화 정책과 도시화 현상에 파생된 공동체의식의 붕괴를 회복시켜 재정립하는 일이 우선되었다. 또, 민주적 정치발전의 한계점인 정치참여 의식과 민주시민의 능력의 회복과,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경제윤리 의식을 신장시키는 일은 매우 강조되었다.

그에 따라 7차 교육과정 도덕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과 내용을 설정하였다.¹⁶⁾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초·중·고를 통하여 4개의 영역별로 기본적인 핵심 덕목을 세계적인 보편 윤리와 한국적인 특수 윤리의 조화 원칙에 따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이 일관되게 심화, 내면화되어 행동의 실천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핵심 덕목은 개인생활에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이고, 가정·이웃·학교생활에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애향이다.

또 사회 생활에 준법·타인배려·환경보호·정의·공동체 의식 그리고 국가·민족 생활에 국가애·민족애·안보의식·평화통일·인류애를 선정하였다. 학년별 특성으로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7-10학년에서는 학년별로 2개의 영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하였다. 특히, 7-8학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룬 덕목·예절 등을 심화, 보충하여 인력 교육적 접근방법으로 지도하게 하였으며, 9-10학년에서는 생활 영역별로 논의의 여지가 큰 다양한 가치·윤리 문제들을 제시하여 탐구하게 하였다.

16) 교육부, 앞의 책, p. 176.

다. 교과 교육 과정의 체계성 확립

‘도덕’이라는 교과는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에 의해 발전되고 진행되어 온 만큼 선행연구나 외국의 학문적 전통과 연관지어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범위와 계열성의 두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았다.¹⁷⁾

첫째, 범위의 경우 생활 공간 확대(expanding community)원칙에 의해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로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매학년마다 다루었던 영역을 학년당 2개의 생활영역으로 다루고, 각 생활 영역별로 5개씩의 주요 가치와 덕목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둘째, 계열성의 경우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의 원리에 따라 학년별 심화의 계열성을 따랐다. 7, 9학년에서는 개인생활과 가정·이웃·학교 생활을, 8, 10학년에서는 사회생활과 국가·민족 생활을 다루고 있다. 중, 고등학교에서 각 생활영역을 두 번씩만 다루게 함으로써 6차의 문제점인 중복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7-8학년은 초등학교 3-4학년의 접근법을 심화시켜 규범·예절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9-10학년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접근법을 이어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와 심화를 더불어 도덕적 판단력의 심화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을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17) 교육부, 앞의 책, pp. 176-177.

2. 도덕교육 내용면

가. 도덕교과 과정의 성격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도덕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교과이다. 또한 ‘도덕’이란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되는 지켜야하는 가치와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규범 및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길러주는 동시에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준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도덕과 교육은 21세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지녀야 할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규범의 조화로운 습득에 중점을 둔다.

‘도덕’의 계열적 특성을 보면 초등학교 단계인 3-6학년에서는 통합교과인 1-2학년의 ‘바른생활’에서 이루어진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교육을 발전, 심화시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초보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 그리고 도덕적 실천 성향과 행동 습관 형성에 역점을 둔다. 중·고등학교 단계인 7-10학년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원리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도덕과 교육을 보다 심화해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념화, 도덕 원리에 입각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 습득에 중점을 둔다. 다음으로 범위적 특성으로는 초등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개인생활, 가정·학교·이웃 생활의 비중이 높고, 고학년에서는 사회생활과 국가·민족 생활의 비중이 커진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년에 따라 생활 영역상 내용의 비중의 차이

는 없으나, 내용의 심화를 위해 7, 9학년에서는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을 중점으로 다루며, 8, 10학년에서는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 무게를 두었다.

나. 중학교 도덕 교과과정의 목표

중학교 도덕과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첫째,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의 인류 공역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고 하였다. 그 실천을 위한 하위의 목표로서 개인생활 / 가정·이웃생활 / 사회생활 / 국가·민족생활의 4개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각 생활 영역에서 도덕적 중요성과 필요성의 이해, 도덕적 문제의 해결 및 판단 능력의 신장, 도덕적 태도 및 실천 의지의 함양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열성을 살려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7-8학년의 하나의 단계로, 9-10학년을 다음 단계로 설정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의 목표를 1, 2학년의 목표로 확대하고, 2학년의 목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으로 맞추었다. 결국 중학교 7차 도덕과 목표의 설정은 중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정도에 따라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을 통합하여 생활 습관의 형성-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실천 의지의 형성-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과 생활원리의 체계화의 계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그 비중을 점차 높여갔다.

다. 도덕 교과 내용

[도덕교과 내용의 흐름도]

생활영역	중학교 1학년 (7학년)	중학교 2학년 (8학년)	중학교 3학년 (9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개인생활	°삶의 의미와 도덕 °인간다운 삶의 자세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 °도덕 문제와 도덕 판단	
가정 · 이웃 · 학교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친족 간의 예절 °이웃 간의 예절 °학교 생활 예절		°진학과 진로 탐색 °가정, 친족, 이웃생활과 도덕문제 °학교 생활과 도덕 문제	
사회생활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현대사회와 시민 윤리 °민주적 생활 태도 °생활속의 경제 윤리		°공동체 의식 문제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문제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국가 · 민족생활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창달 °국가의 충성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남북 통일과 통일실현의지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도덕과의 내용구성은 목적(goal) → 목표(objectives) → 내용(contents)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의 표에 나온 도덕과 교육 내용의 선정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구성상의 체계성, 특히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이 중시된다. 범위적 특성으로는 7, 9학년에서는 개인 생활과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8, 10학년에서는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계열적 특성으로는 중·고등학교 단계인 7-10학년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도덕과 교육을 보다 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의 좀더 깊은 이해와 신념화, 도덕 원리에 입각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의 습득에 강조점을 두었다.

둘째,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격을 대표하는 4개의 생활 영역별 주요 가치·덕목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생활에 생명존중·성실·정직·자주·절제를, 가정·이웃·학교생활에서는 경애·효도·예절·협동·애교·애향을, 사회생활에서는 준법·타인배려·환경보호·정의·공동체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민족 생활에는 국가애·민족애·안보의식·평화통일·인류애를 그 주제로 삼았다. 이러한 덕목은 우리의 전통 윤리 도덕과 세계적인 보편가치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졌다. 동시에 한국인의 정신 자세나 생활태도 및 행동양식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극복, 치유하고 바람직한 점을 권장한다는 국민 정신의 교육적 목적에 부응하려고 한 것이다.

3. 도덕과의 교수·학습·평가의 방법면

도덕과에서 교수학습 지도 방법론상 가장 어려운 점은 도덕과는 타 교과보다 정의적·인성적 영역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 효과가 당장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덕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도덕 규범이나 예절 등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이 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힘은 도덕과 교수방법에서 매우 중요시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도덕과 학습 지도의 기본 방향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1999)』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항목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통합 및 교사의 신념·열정 중시
- 탐구 및 사고 능력 중시
- 다양한 학습 기회 중시
- 교사의 역할 중시
- 방법 및 기법의 다양성 강조
- 타교과 및 교과 외 활동과의 연관성 및 도덕성 중시

도덕과 교수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제를 필요로 한다. 이는 타 교과와 차별되는 도덕 교과만이 지닌 특징이다.

첫째, 도덕과에서는 지도 교사의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지도교사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도덕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은 어긋나게 된다. 뒤르캄(Durkheim, E)도 성공적인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믿음과 열정’의 상태

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덕과 교사는 단순한 지식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모방, 동일시, 표본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므로 모든 점에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덕과 교육은 다른 교과에 비해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도덕적 성과는 지적이고 기술적인 변화가 아닌 가치와 태도의 등과 관련된 정의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대중 매체를 비롯하여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에서의 도덕 교육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교과를 평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왜 평가를 하며,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수반된다. 교육평가는 학생들이 수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평가결과는 학생의 수업목표의 달성여부를 보여주고 추수적인 수업 계획을 위하여 환류(feedback)되는 것이다.¹⁸⁾

여기에서는 도덕과 평가 영역이 문제되며, 도덕과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평가되는 것이 지식인지, 가치관인지, 의지인지, 행동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과 평가의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의 방법상의 문제이다. 가치관·신념·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우열평가와 점수화의 객관적인 평가방식으로 연결될 때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피평가자가 평가자의 의도와 취지를 알 경우에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생각되는 반응하기 쉽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덕과 평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⁹⁾

18) 김호권외 3인, "현대 교육평가론", (교육과학사, 1978)

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덕과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신념과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을 포함하게 된다.

· 도덕과의 인지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대체로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정도,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 도덕과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 등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 행동적 영역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의 준거가 된다.

요컨대, 도덕과의 평가방법은 도덕과의 특성상 정의적 영역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적 영역을 우열화 하거나 서열화 할 수 있는 절대 방법은 없다. 그러나 도덕적 합리성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수행평가(修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²⁰⁾를 들 수 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라고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학교에서 평가 시 수행평가를 여러 가지 평가의 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²¹⁾

19)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도덕,사회”,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pp. 223-224.

20) 수행평가는(performance assessment)는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시행되었다.

21)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하기 어려우며 평가에 인적, 물적자원이 많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문항을 사용하더라도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로서의 한계점은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도덕적 실천의지와 성향의 평가결과를 점수화해서 우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덕평가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소요되며 교수학습 목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공정성 등 확보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Ⅳ. 제7차 중학교 도덕교과서 분석

1. 교과서 분석의 범위

앞에서는 제시했듯이 ‘인성(人性, Humanity)’이라는 개념 자체의 광범위한 성격으로 인해, 인성교육(人性教育)에 대한 다양한 관점만큼²²⁾이나 그에 따른 개념, 덕목, 내용 등도 학자, 시대, 지역마다 다양할 것이다. 여러 논의 가운데서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인성적 덕목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도덕과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내용으로써 어떤 덕목들이 설정되고 체계화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중학교 도덕교과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의 경우 I 장 ‘개인생활’에서는 삶의 의미와 도덕, 개성신장과 인격도야, 인간다운 삶의 자세, 청소년기와 중학교 시절을 II 장 ‘가정·이웃·학교생활’에서는 행복한 가정, 친척간의 예절, 이웃간의 예절, 학교 생활예절을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2학년의 경우는 I 장 ‘사회생활과 도덕’에서는 현대사회와 전통도덕,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민주적 생활태도, 생활속의 경제윤리를 II 장 ‘바람직한 국가·민족 생활’에서는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22)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교육과학사, 2004), pp. 111-124.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자로서 콜버그, 레스트 버코위츠, 데이먼, 블라지, 호프만, 리코나 등이 있고 국내 연구자로서 경험적 연구결과로 도출하려는 시도가 문용린, 김안중에 의해 이루어졌다.

로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3학년은 I 장 ‘개인의 가치와 도덕문제’에서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 인간의 삶과 가치갈등, 도덕문제와 도덕 판단을 II 장 ‘가정·이웃·학교생활과 도덕문제’에서는 진로·진학과 도덕문제, 가정·친척·이웃생활과 도덕문제, 학교생활과 도덕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과과정 구성을 보면 중학교 1, 2학년에서는 생활습관의 형성과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실천의지의 형성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가치판단 능력의 신장과 생활원리의 체계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중학교 1, 2학년의 교과의 내용이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의 습득, 개념과 악, 생활화에 관심을 두는데 반해 3학년은 정체성(正體性)확립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가치추구를 강조하며 여러 가지 갈등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통해 가치판단 및 선택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내용이 중심이다. 3학년 교과는 I 장 ‘가치와 도덕’, II 장 ‘가정·이웃·학교생활과 도덕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은 1학년에서의 I 장 ‘삶과 도덕’, II 장 ‘가정·이웃·학교생활예절’을 보다 심화, 확대하였기에 1학년 과정의 구성과 중복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학년과 3학년 교과과정은 그 주제가 동일하다고 보고 3학년을 제외한 중학교 1, 2학년의 도덕교과서 내용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 분석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이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도덕생활의 필요성과 성격을 제시하고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닦는 기준과 원리,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자세를 배우도록 하여 청소년으로서 바람직한 인간

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도덕생활의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I 장 ‘삶과 도덕’에서는 개인으로서 도덕적 삶과 관련지어 도덕의 필요성과 자아실현,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였다.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통해 도덕의 필요성을 묻고, 도덕적으로 살아야하는 이유와 도덕적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II 장 ‘가정 · 이웃 · 학교생활예절’에서는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부모와 자식간의 도리, 형제자매간의 도리, 친척간의 예절이나 조상에 대한 예절 등을 다루고 있다. I 장이 개인차원에서 도덕의 필요성과 도덕적 실천의지를 가지게 하는 거라면 II 장은 나를 둘러싼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이성 간, 선후배 간, 선생님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다루므로 그 관계가 보다 포괄적이다.

1학년 교과서에서는 생활 습관의 형성과 개인생활, 가정생활, 이웃생활에 겪는 다양한 일에 대한 문제해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력을 배우기 전에 사회적이고 전통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예절을 먼저 익히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써 실천의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인성교육론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행동변화로서 도덕적 실천²³⁾이라는 방향과 같다.

중학교 1학년에 나타난 수업 소단원의 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중학교 1학년 수업 소단원]

23) 남궁 달화, “인성교육론”, (서울;문음사, 2004), p. 250-260. 시버(Siber, 1980)는 도덕의 원리, 규칙, 판단, 훈계 등에 관한 도덕적 논의는 행동에 대해 태도를 품게 해 준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도덕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함.

I. 삶과 도덕

1. 삶의 의미와 도덕

- (1) 도덕의 필요성
- (2) 양심과 도덕
- (3) 관습, 법, 예절, 도덕의 관계
- (4)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

· 단원 목표 : 인간의 삶 속에서 도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양심과 도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2.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 (1) 자아의 발견과 실현
- (2) 개성의 존중과 신장
- (3) 훌륭한 인격
- (4) 인격을 갈고 닦는 길

· 단원 목표 : 자아의 의미를 알고 개성 신장과 인격도야의 의미를 깨달아 훌륭한 인격도야를 위한 올바른 태도와 실천 성향을 기르도록 한다.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 (1)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 (2) 생명은 왜 소중한가?
- (3) 사랑과 관용
- (4) 감사하는 생활

· 단원 목표 :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는 자세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인간다운 인간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에 옮기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1) 청소년기의 모습
- (2) 청소년기의 중요성과 과제
- (3) 자제하고 반성하는 삶
- (4)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삶

· 단원 목표 : 청소년기의 특징을 제시하고 인생 단계에서의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자제하고 반성하는 삶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기르게 한다.

II. 가정 · 이웃 · 학교생활 예절

1. 행복한 가정

- (1) 가정은 왜 중요한가?
- (2) 건강한 가정
- (3) 부모와 자녀간의 도리
- (4) 형제자매 간의 도리

· 단원 목표 : 행복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실천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한다.

2. 친척간의 예절

- (1) 예절의 의미와 변화
- (2) 계촌과 호칭 예절
- (3) 친척 간에 사이좋게 지내기
- (4) 조상에 대한 예절

· 단원 목표 : 친척간의 관계를 중시해 왔던 조상들의 예절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를 오늘날의 생활에 맞게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3. 이웃간의 예절

- (1) 진정한 이웃이란 무엇인가?
- (2) 웃어른 공경의 전통
- (3) 이웃간의 서로 돕고 사는 길
- (4) 이웃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

· 단원 목표 :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는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이웃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하는 행동을 가지도록 돕는다.

4. 학교생활 예절

- (1)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 (2) 친구 및 이성간의 예절
- (3) 선배와 후배 간의 예절
- (4) 학교 사랑의 실천

· 단원 목표 : 보람찬 학교생활을 위해서 친구 및 이성간, 선후배간,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중학교 1학년의 도덕과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도덕과를 배우기 전 도덕

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덕적 생활에 필요한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생활화를 위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I -1. ‘삶의 의미와 도덕’은 도덕적 생활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도덕적 인간상과 양심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사람’과 ‘된사람’이다. ‘난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된사람’을 추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것은 도덕에서 지식보다는 인성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느끼고 깨우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I -2.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에서는 자아의 발견과 실현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 개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격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위에서 인격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게 하고,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실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I -3. ‘인간다운 삶의 자세’는 인간다운 삶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해 현실의 예화나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는 내용 구성이 많다. 인간다운 삶은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도덕적 삶이다. 자기존중, 생명존중, 사랑, 관용, 감사, 절제 등의 도덕적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I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은 청소년기의 혼란과 고민, 방황을 사례나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인성으로써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지니도록 하며 자제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II 장 ‘가정, 이웃, 학교생활 예절’에서는 현대의 다양한 예절에 대해 다루

고 있다.

Ⅱ-1.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없듯이 가정에서부터의 어른에 대한 예절, 부모, 형제간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인성교육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다.

Ⅱ-2. ‘친척간의 예절’, Ⅱ-3. ‘이웃간의 예절’, Ⅱ-4. ‘학교생활 예절’에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웃, 또래 친구들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비롯하여 예시를 통해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또 ‘어른을 모시는 예절’, ‘가족이나 친족이 상을 당했을 때 예절’, ‘선생님에 대한 기본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지키고 적용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세우게 한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느껴보게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 가게 하는 내용은 인성교육론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 분석

1학년 도덕교과서에서는 도덕적 삶의 가치의 중심을 개인이나 이웃, 또래 등과의 관계에 두었다면 2학년 교과서에서는 그 범위를 사회전체, 국가간·민족생활로까지 확대시켰다.

중학교 2학년 도덕과의 목표도 1학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개념의 파악과 도덕적 생활에 필요한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생활화’다.

2학년 교과서에는 I 장에서 현대사회와 전통도덕,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민

주적 생활태도, 생활 속에 경제 윤리를, II장에서는 민족과 국가차원에서의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를 다루고 있다.

중학교 2학년 각 단원들의 목표와 연계하여 도덕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2학년 수업 소단원]

I. 사회생활과 도덕

1. 현대사회와 전통 도덕

- (1)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의 필요성
- (2) 전통 도덕의 기본정신
- (3) 전통 도덕의 구체적 내용
- (4) 전통 도덕의 적용과 실천

· 단원 목표 : 현대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통 도덕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현대사회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게 한다.

2. 현대 사회와 시민윤리

- (1) 시민 사회와 시민의 자질
- (2) 시민 윤리의 필요성
- (3) 시민 윤리의 기본 정신
- (4) 시민 윤리의 적용과 실천

· 단원 목표 : 시민사회의 구성조건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찾아보고 생활에서 시민윤리를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게 한다.

3. 민주적 생활태도

- (1) 민주 사회와 인간존중
- (2) 자발적 참여와 봉사
- (3) 질서 의식과 준법 정신
- (4) 공정한 절차와 올바른 의사 결정

· 단원 목표 : 민주 사회에서 인간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민주적 생활태도로서 요구되는 질서 의식, 준법정신, 다수결의 원칙, 공정한 절차

등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4. 생활 속의 경제 윤리

- (1)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
- (2)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
- (3) 일하는 즐거움과 풍요로운 생활
- (4) 근로자와 기업인의 화합과 협력

· 단원 목표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절제하고 절약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며 근로자, 기업인, 소비자로서의 경제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II. 바람직한 국가·민족 생활

1.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1) 민족과 민족 문화의 의미
- (2)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유산
- (3)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
- (4) 주체적 문화 교류의 자세

· 단원 목표 : 민족의 얼과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이를 세계 속의 민족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자세를 찾아본다.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1) 나라란 무엇인가
- (2) 나라가 하는 일
- (3)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 (4) 우리나라의 이상과 목표

· 단원 목표 : 나라의 등장 배경과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3.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 (1) 애국·애족의 중요성과 방향
- (2) 조상들과 재외 동포들의 애국·애족
- (3) 중학생으로서 애국·애족하는 길
- (4)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방향

· 단원 목표 : 중학생으로서의 애국·애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와 겨레의 미래

를 위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노력을 가지게 하도록 한다.

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 (1) 통일의 의미
- (2)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 (3) 통일을 위한 노력
- (4)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단원 목표 :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북한에 대해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게 노력한다. 또,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모색한다.

I 장 ‘사회생활과 도덕’에서는 사회생활 속에서 도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생활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오늘날 전통 도덕의 위기를 실감하고 전통도덕과 현대시민 윤리와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그 구체적인 단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I-1. ‘현대사회와 전통도덕’은 전통도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은 고리타분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정신은 오늘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전통의 기본 정신을 토속신앙,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전통종교에서 찾아 인간존중, 자비정신, 생명존중, 인격수양, 인류의 중시, 조화와 추구 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전통도덕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생활 속에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도덕적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I -2. ‘현대사회와 시민 윤리’ 단원은 시민사회의 기본적 자질로서 시민 윤리를 요구한다. 시민윤리의 기본 정신은 인간존중, 준법정신, 질서의식, 공공선을 위하는 정신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 시민윤리의 확립은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기본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윤리 실천적 방안에 대한 예보다는 이론적인 설명 위주로 그치고 있다.

I -3. ‘민주적 생활태도’ 단원은 민주사회는 인간존중 정신이 실현되는 사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존중 사상발전 과정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등의 성현의 가르침의 공통점에서 찾고 그 정신이 오늘날 현대 ‘유엔인권선언(1948)’ 등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 존중 사상의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활동, 선입견의 배제 등을 통해 얻게 한다. 이러한 민주적 생활태도는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방안이 되며 이것이 바로 곧 인성교육의 실현이다. 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시민단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느낌으로서 자신만의 도덕적 가치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I -4. ‘생활 속의 경제윤리’ 단원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로서 반성적 생활태도를 요구한다. 반성적 생활태도란 계획을 실천한 뒤에는 이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반성적 생활태도는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경제적 실천 행동이며 이것은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 정직한 경제활동 생활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기업인으로서 유일한의 예는 기업가 정신을 깨닫게 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II 장 ‘바람직한 국가·민족생활’에서는 민족문화의 중요성과 주체적인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만의 민족적 과제인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의 당연성을 강조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루었다. 특히 학교생활 속에서 민족의 얼과 문화유산을 알고 애국·애족,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올바른 통일 실현 의지를 가지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단위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1.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기 드문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고 단일문화로서의 우리 문화의 특징을 적어보게 하며 민족의 주체적 문화의 예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남의 문화만 쫓아가는 문화사대주의와 자국민의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보는 문화우월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민족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개방성과 자신만의 고유한 주체성(개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Ⅱ-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에서는 중학생으로서 국민의 도리나 역할을 그림이나 만화로 그려봄으로써 국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게 한다.

Ⅱ-3.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는 낡은 국민성으로 인해 도태되거나 망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민족애, 애국심을 강조한다. 민족공동체로써의 함께 느끼고 봉사하는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Ⅱ-4.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의지’는 주로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 나온다. 단일민족 국가로서 민족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체적 노력과 더불어 남북분단이라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통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우리의 자세를 살펴본다.

요컨대, 중학교 2학년 도덕 교육에서는 개인 차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체적 사회생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전체 질서유지, 올바른 경제관 확립,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

한 우리의 자세를 내세우고 있다. 공동체적인 생활과 공동선을 위한 노력은 나와 남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게 하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 양보와 타협을 요구되는 인성교육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4. 도덕교과서 속의 인성교육의 한계

중학교 1, 2학년 도덕 교과서의 인성교육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도덕개념으로는 ‘도덕적 지식’, ‘도덕적 실천의지’, ‘보편적 윤리’, ‘사회적 책임’, ‘가치형성’, ‘절제’, ‘관용’, ‘정체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제 갓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모호하고 추상적인 도덕적 개념이 내면에 형성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이다. 또 단원의 내용 설명 부분에 표현된 ‘방종’, ‘아량’, ‘금욕’, ‘무소유’, ‘편견’과 ‘선입견’ 등의 단어의 뜻도 어려우며, ‘만인과 만인의 투쟁’, ‘한강의 기적’, ‘국제통화기금’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다. 아직까지 도덕 개념이나 가치가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실천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현행 교과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체험의 기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인성교육은 인간의 바람직한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며, 학생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도덕교육이다. 그러나 도덕성의 발달은 학생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된다.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스스로 도덕적 행동화로 이

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행 교과서는 행동화의 방안이 부족하다.

교과서에는 소단원마다 몇 개의 ‘함께하기’코너가 있다. 그러나 제시된 문제가 대부분이 ‘생각해보기’, ‘발표해 보기’, ‘그려보기’, ‘반성해보기’, ‘찾아보기’, ‘비교해보기’, ‘분석해보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천해보기’, ‘경험해보기’, ‘찾아가보기’등 행동적인 내용은 몇 개 되지 않는다. 7차 도덕교육과정 목표는 올바른 생활태도와 실천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이것은 지(知), 정(情), 행(行)의 통합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은 아는 것(지과)과 느끼는 것(情) 대부분이고 체험(行)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체험의 기회를 높이는 방법으로 역할법, 토의법, 시뮬레이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있다. 도덕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은 주로 교사의 주입식 설명, 일화, 예시 등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체험의 기회도 거의 주지 않는다.

셋째, 현행 교과서는 타 교과목 및 교과 외의 활동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인성교육은 도덕적 행동실천을 그 목표로 한다. 도덕과의 내용은 지식위주의 편중에서 벗어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과 연관된다. 학교교육에서는 지식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인성교육의 광범위한 성격으로서 도덕교육이 여러 교과와 연계성을 통해 인성교육으로서 실천되어야 함을 뜻한다. 생명과학과 생명존중이라는 윤리의 문제를 연관시켜 보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서는 도덕교과가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구성되어 있고 타 교과와의 연계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 또

교과서 내용은 교과 외 방과후 활동, 도덕실 활용, 학교 외 봉사활동, 학부
모와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은 거의 없어 도덕교육이 단
순히 이론교육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IV. 결 론

현대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적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의 예절, 규범, 질서, 법제도 확립 등은 필연적인 결과인지 모른다.

최근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바르고 도덕적인지 조차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7차 도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전인적 인간형성’이라는 인성교육적인 측면을 중학교 1, 2학년 도덕교과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중학교 1, 2학년 도덕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원의 중간과 끝에 ‘인물학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사상적, 종교적, 도덕적 삶을 남보다 뛰어나게 실천한 인물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시도된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중학교 1학년에서는 개인생활과 가정·이웃·학교생활의 2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생활에서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 양심, 관습, 법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여 삶의 목적으로 자아의 실현과 개성의 신장, 인격도야의 자세를 기르고자 한다. 가정·이웃·학교생활에서는 가정의 의미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알고 부모와 자녀간의 도리, 형제자매간의 도리, 친인척간의 예절, 이웃간, 학교생활에서 예절문제를 다룬다.

셋째, 중학교 2학년에서는 사회생활과 국가·민족생활 영역을 다룬다.

사회생활에서는 전통 사회의 기본정신을 오늘날 현대 사회 실정에 맞게 재조명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시민윤리와 경제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국가·민족생활에서는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우리민족의 얼과 민족문화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 본다.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로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재조명해 보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요컨대 중학교 1, 2학년 도덕 교과서는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실천의지의 형성’을 목표로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 태도, 행동 등의 규범과 예절을 익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상적인 사회분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중학교 1, 2학년 도덕 교과서의 인성교육 내용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도덕교과서에 제시된 도덕적 가치 문제들의 개념이나 성격이 추상적이고 어려워 중학생 수준에서 도덕적 생활화를 내면화하기 어려우므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교과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체험의 기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는 인지적 측면을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특히 정의적이고 실천적 요소를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도덕교과서 내용은 타 교과과목 내용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또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이 방과후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과 같이 학교생활 외에 여러 프로그램에서의 적용된 사례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인성교육이 자칫하면 이론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도덕 교사용 지도서」 - 1, 2학년, 서울: 지식사

김동규(2002), 「도덕성 회복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김태훈(1998), 「도덕 윤리와 지도 방법론」, 한국도덕윤리와 교육학회,

김향인(2001), 「도덕과 교육론」, 한국도덕과 교육학회, 서울: 서울과학사

남궁 달화(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박병기, 추병완(1991), 「윤리학과 도덕교육 I」, 인간사랑

박병기 외 (윝김)(1999), 「아동인격교육론」, 경기도: 인간사랑

박장호 · 추병완(역)(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1■, 서울: 인간사랑

이돈희(1986), 「도덕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범웅 외(공)(2004), 「도덕과 교육의 실제」, 경기도: 인간사랑

이홍우(1991), 「교육의 개념」, 서울: 문음사

정세구 외 윝김(1997), 「인격교육과 덕교육」, 서울: 배영사

정창우(2004),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조난심(2004),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선 방향 -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교육과정개발원, 「교육과정연구」, 22권, 1호)

조대엽 · 박길성 외(2005),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서울: 굿인포메이션

홍경자(2004),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논문

강성모(1983), “교육내용으로서의 도덕의 내용과 형식, 콜버그와 피터스의 도덕교육 이론분석”, 한국교육연구회, 도덕교육연구 제3집

김래화(2000), “도덕교육에서 덕교육에 관한 고찰”, 충북대학교석사논문,

김태훈(1997), “도덕과에서의 인성교육 방안 연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김향인(2001), “미국 도덕교육 및 도덕교육연구의 역사와 과제”,

박병기, 도덕교육의 공동체적 접근과 과제, 민주문화논총 제4권 제6호, 1993

박병문(2005), “제7차 도덕과의 인격교육론적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중학교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논문

이은선(2002), “제7차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고찰과 반영- 중학교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석사논문

정창우(1997), “덕교육의 특성 및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조난심(1991), “도덕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자율성- 그 의미와 한계-”,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홍은옥(2000),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교육학석사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Education in the Seventh Curriculum reform for Moral Education

– focus on the middle school moral textbooks –

Eun-Hee, Choi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Directed by Professor Tae-Gun, Yoo

Adolescent is the time when a man experiences the greatest change through the whole life time, thus his/her way of life might be decided. The goal of the curriculum of the moral education is to establish the right visions of value and life in juveniles' mind so as to make them the moral men.

The humanity education is the most basic one among all educations. The modern society has suffered from moral crisis such as the weakened human dignity, anti-humanism, egoism and materialism. Especially, the factors – dissolving the members of family, the moral ills in modern day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 turn the humanity education to the school education. This makes the request to revise the curriculum of the 7th moral education. Thu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how much the moral

textbook of the first and Second year's in middle school has realized the moral human whom the curriculum of the 7th moral education aims.

The way of this research is following like this : the first one is to observe the meaning of the humanity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e second one is to consider contents of the moral education in the seventh curriculum and analyse the them. And the last one is to conclude the problems and the limit.

The features of the humanity education in the moral textbook of the first and second in middle school are following like these :

The textbook of the 1st year is based on the need of moral, the realization of the self and the meaning of lif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life and intends students to do the moral action which contains the decenc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among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courtesy among relatives and ancestors.

The textbook of the second year is stressed on raising right democracy citizen with the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moral and the modern one. Also it stimulates the willingness of the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establishing independence of its own race cultures.

The textbook in the first year aims to establish the right vision of value with the moral problems about relations between me and the environment around me, while the one in the second year extends the range of the relations into the whole society. Also it emphasizes our attitudes to develop our own race cultures and to unify two

Koreas by having the right vision for the nation.

In conclusion,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m. The moral values or the moral concepts in the first year is too vague and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fully in their minds. A textbook in the second year don't support the chances of the moral experiences. It is only focused on cognitive aspect not on practice one students can experiences. And the last one is that a moral education textbook is too independent from other subjects and doesn't have any connection with extra curriculum, local societies, and other educational programs to link moral education into the humanity one in one's life.

